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2. 1. 13.(목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철도안전 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정채교, 사무관 박태현 ·☎ (044) 201-4600, 4603	
	철도운영과	담 당 자	·과장 오수영, 사무관 김광수 ·☎ (044) 201-3970, 4636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

국토부, KTX-산천(원강) 잠정 운행중단 조치

- 사고차량과 동일한 열차 13대는 바퀴를 전부 교체한 후 운행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최근 발생한 KTX-산천 열차사고* 이후 확실한 안전 확보를 위해 1월 14일부터 사고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 바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는 해당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조치**했다고 밝혔다.

* 1.5.(수) 11:53경 경부고속선 대전~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바퀴 등 파손된 후 정차

** (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)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

○ 지난 1.5일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(차륜)를 사용하는 열차의 운행은 여객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.

※ 이번 조치로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고속차량 중 최대 12% 수준

○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고속 열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(1.10~1.14, 5일간)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①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, ②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,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차륜 파손 원인을 비롯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

-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“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“실태 점검을 통한 세부 후속조치를 비롯해 관련 연구원, 학계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**전담조직(TF)**을 구성하여 차륜 관련 안전대책, 열차 이용객 안내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**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**을 마련할 것”이라고 밝혔으며,
 - “이번 조치에 따라 운용 가능한 열차 편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, **한국철도공사**에서 설 명절 대수송 기간(1.28~2.2) 이전에 **여객 수송 수요, 좌석 예약상황, 코로나-19 방역관리** 등을 고려하여 열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안전정책과 박태현 사무관(☎ 044-201-460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